

[사회]

특수학급 가려면 버스 통학

#1 초등학교 6학년인 A(지적 장애 1급)군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로 진학하는 중학교에는 초등학교 친구도 없고 집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할 정도로 멀기 때문이다. A군이 사는 곳 인근에는 특수학급을 둔 중학교가 없는 것이 그 이유다.

특수교사 휴가면 대체교사 없어

#2 일반 초등학교에서 '원반'과 '특수반'을 오가며 수업을 받는 B(초등학교 2년·뇌병변 1급)군은 이번 달부터 특수반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특수교사가 출산휴가를 얻어 90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 학교에서는 기간제를 포함한 특수교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안돼

#3 목발을 짚지 못하는 C(초등학교 3년·근이양증)군은 휠체어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이다. 그런데 '원반'은 3층, '특수반'은 1층에 있어 이동을 맘대로 할 수 없다.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C군에게 있어 원하는 때 운동장에 나가는 일은 꿈같은 일이다.

장애인 학생 배려없는 불편한 학교

'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교육청에 개선 촉구키로

앞에 열거한 사례는 장애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들이다. 새 학기 장애학생 진단 및 배치를 결정 짓는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앞두고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상임대표 심재의·이하 연대)가 5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연대 소속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실태를 발표하고,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처럼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연대 박찬동 집행위원장은 "특히 삼급학교로 갈수록 태부족인 특수학급 수를 최소한 초등학교 비율로 맞춰야 한다"며 "공립학교의 경우 대부분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전체 초등학교 136곳 중 69.9%인 95곳, 중학교의 경우 전체 81곳 중 25곳(30.9%), 고등학교 61곳 중 13곳(21.3%)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다.

한편 올해 현재 광주의 장애학생 수는 1천908명. 이 중 5곳의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913명,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860명,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이 135명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니눔으로 '사랑의 온도탑' 채움시다

'광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국)는 4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희망 2008 니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다. 내년 1월31일까지 지속될 이번 캠페인의 목표 모금액은 17억2천만원으로 지난해 모금액 15억6천100만원보다 10% 높게 설정됐다.

▶관련기사 20면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선거사범 집중 단속

광주·전남 경찰청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수사전담 요원 126개 반 516명을 투입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나설 계획이다. 또 광주권 5개 경찰서 수사과장 대책회의와 함께 모의 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며, 선거일 전날에는 일제 검문검색 등을 실시해 불법 선거전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선거사범처리 상황실 운영에 이어 187명인 선거전담반을 231명으로 늘렸다. 또 3개팀 15명으로 구성된 기동수사팀과 216개팀 678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지구대·112 타격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24시간 인터넷 감시를 하는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법 무고·위증 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후

형량 강화... 항소율은 줄어

재판 속도 빨라져

광주지방법원이 무고·위증사건 전담재판부를 운영한 뒤 징역형 등 형량이 강화되었지만 항소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2월21일 형사 6단독 재판부를 무고·위증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9개월간 운영한 결과 무고와 위증사건 각각 51건, 위증교사 2건 등 총 104건의 무고·위증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 9개월(2006년 5월21일~2007년 2월20일) 동안의 65건보다 60%가량 증가했다. 집중심리가 이뤄지면서 재판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전담재판부 신설·운영 이후 재판 결과 별로는 징역 1년형 3명을 포함

해 8명(7.7%)이 실형율, 55명(55.9%)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은 28명(26.9%)이었으며, 무죄는 3명에 그쳤다.

징역형 선고율은 60.6%로,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 40%에 비해 20%가 증가했다.

반면 항소율은 전담재판부 운영 이전 41.5%(사건처리 대비)에서 38.4%로 줄었다.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는 "무고·위증사건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 법률적 판단은 어려우면서도 개인이나 사법 작용에는 큰 피해를 준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행사재판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무고·위증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직판사인 친구범 前 제주지사 아들

"아버지 재판은 오판" 주장 논란

과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친구범 전 제주지사의 아들 신용인(41·사시40회) 부산지법 가정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원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오판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 판사는 4일 '법정구속을 당한 아버지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생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진실에 보는 눈을 흐리게 했고 그 결과 (비물 공여) 사건에서) 오판을 하게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신 판사는 "아버지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장이 우근민 제주지사의 변호사와 끝표를 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로비를 했으며 결국 문제가 되자 몽땅 아버지 탓으로 돌리면서 회피신청을 해 아버지의 정치생명이 끊어지고 (이후 뇌물 사건으로) 감옥에까지 가게 됐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지난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신 전 지사는 3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따로 기소돼 법정구속됐다.

한편 신 판사는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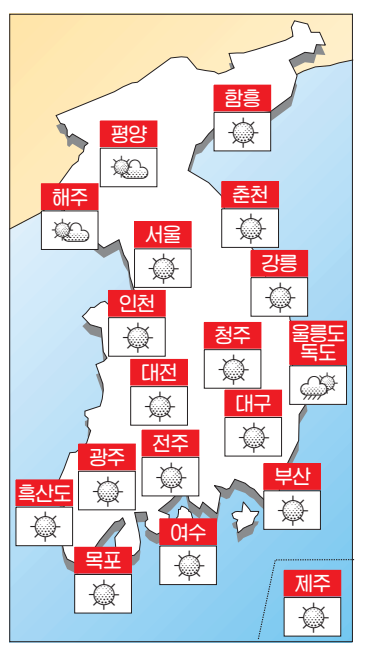
/연남뉴스

찬바람 '공공'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12월 5일 (음 10월 26일) <전국날씨>

Table with 2 columns: Location and Temperature. Locations include Seoul, Gyeonggi, Chungcheong, Jeolla, etc. Temperatures range from -8°C to 7°C.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11:20 썰물 < 04:05, 여수 밀물 < 06:28 썰물 < 12:26

▲해돋이 07:25 ▲해질 17:20 ▲달돋이 03:11 ▲달짐 14:2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7 columns: Day, Day of Week, and Weather icons. It shows a forecast for the next week with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 ranges.

연말 기온 평년보다 높고 건조

광주·전남 12월 기상 전망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월 하순 대륙고기압이 약화돼 평년평균(영하 6도~영상 8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강수량은 평년(4~17mm)보다 적겠다"고 4일 예보했다.

이달 중순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영하 5도~영상 9도)분포를 보이겠지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 및 내륙 산간지역에서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내년 1월 상순의 기온은 영하 7도~영상 7도로 예상돼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의 크게 떨어지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평년(6~27mm)과 비슷하겠다.

한편 올해 광주의 11월 평균기온은 9도를 기록해 평년값(1971~2000년)인 8.7도보다 0.3도 높아졌다. 평균 최고기온도 평년값인 14.3도보다 0.4도 높은 14.7도로 나타났다. 11월 강수량은 평년(55.4mm)의 6%에 불과한 3.3mm만을 기록해 1973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

'악취 민원' 광주 위생처리장 옮긴다

광주위생처리장(분뇨처리장)이 30여 년 만에 이설된다.

광주시는 4일 '설비 노후 등으로 인한 악취 발생 때문에 민원이 적지 않았던 위생처리장을 1km 떨어진 광주 제1 하수처리장으로 옮겨 짓기로 하고, 5일 공사에 들어가 2009년 3월에 완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생처리장은 광주 제1 하수처리장 내 7천84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1천557㎡ 규모로 지어지며, 1일 1천t의 분뇨를 처리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99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 서구 유덕동 광주시 음식물사료화 공장 인근에 있던 기존 위생처리장은 30여 년(75년 준공)이 지난 노후시설로 심한 악취발생의 주범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위생처리장에 반입된 분뇨는 전(前)처리 과정을 거친 뒤 종말처리장에 반입되는 하수와 혼합돼 처리된다.

시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저류조 등 모든 시설물을 지하에 만들고 최신풍속도 갖출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ine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Public Brokerage National Top 1st Pass Rate) for Kwangju City School. Includes dates like 12월 3일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Academy) with contact numbers and dates.

Large advertisement for '한식전문점 들안채' (Korean Food Restaurant Deulanchae) announcing an opening on 11월 24일. Includes address and phone number.